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10월 2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 
10월 28일 16:3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 개선 프로젝트(Mandala) 최종보고서 발표

□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(BIS)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3개국(호주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) 중앙은행과 만달라 프로젝트(Project Mandala)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, 최종보고서를 10월 28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

○ 만달라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준수 확인\*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음

\* 국가 간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이동관리(CFM) 정책과 자금세탁방지(AML) 및 테러자금조달방지(CFT) 규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

□ 프로젝트 수행 결과, 하나의 거래에 대해 지급은행, 수취은행 등이 중복 수행하는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, 국가 간 지급의 처리속도 및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

○ 한국-호주, 말레이시아-싱가포르 간의 외화자금 이체 사례를 통하여 규제준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됨을 검증하였음

※ 자세한 내용은 “<붙임> BIS 공동 보도자료 국문 번역본” 및 “<별첨> BIS 공동 보도자료 원문”을 참고

문의처 :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 팀장 신성환, 과장 김덕형

Tel : 750-6511, 6512 Fax : 750-6519 E-mail : [bokcbdc@bok.or.kr](mailto:bokcbdc@bok.or.kr)

공보관 : Tel (02) 759-4023, 4022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 
BANK OF KOREA

※ 국제결제은행(BIS)의 보도자료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이 국문 번역본보다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BIS 및 4개국 중앙은행, 만달라(Mandala)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거래와 관련한 규제준수 절차의 내재화 가능성을 확인**

- 만달라 프로젝트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및 정책 체계를 준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
- 만달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금융거래와 관련한 규제준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

국제결제은행(BIS)과 협력 중앙은행은 공동으로 만달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거래 절차에 규제준수 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.

이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, 한국은행, 호주 중앙은행, 말레이시아 중앙은행, 싱가포르 통화청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.

이 개념증명(PoC) 단계의 프로젝트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, G20의 국가 간 지급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와도 부합한다.

“만달라 프로젝트는 개인정보 보호나 규제준수 확인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면서 국가 간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규제준수 절차를 내재화하는 접근법 (compliance-by-design)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. 우리는 이러한 초기 성과가 국가 간 지급을 개선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”라고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장인 마하 엘 디마키가 말했다.

### **국가 간 거래의 규제준수 확인 간소화**

국가 간 거래와 관련된 규제체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이지만, 서로 다른 국가의 상이한 규제체계를 준수하는 것은 국가 간 지급의 비용을 높이고 거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만달라 프로젝트는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국가별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규제 및 감독기관에게 실시간 보고 및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, 국가 간 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## 주요 혁신 및 기술적 성과

만달라 프로젝트는 설계에 의한 규제준수(**compliance-by-design**)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.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에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내재화하여 국가 간 지급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 만달라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P2P 메시징 시스템, 규칙엔진, 증명엔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.

만달라 시스템은 지급지시 개시 이전에 필요한 모든 규제준수 확인을 완료한다. 모든 규제준수 확인이 완료되면 만달라 시스템은 규제준수 증명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. 이 증명서는 디지털 결제자산 또는 지급지시 전문(**message**)과도 결합되어 전송될 수 있다.

또한 고객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규제준수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된다.

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활용사례를 통해 기술적인 구현가능성을 입증했다:

1. **싱가포르-말레이시아 간 자금대차:** 만달라는 금융기관의 자본이동관리(CFM) 정책 점검 및 제재리스트 확인 등 규제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, 중앙은행의 실시간 규제준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다.
2. **한국-호주 간 증권취득 관련 자본거래:** 만달라는 비상장증권 거래에 대한 제재리스트 확인 및 자본이동관리(CFM) 보고요건을 자동화했다.

## 디지털자산 및 기존 전문(message) 송·수신 시스템과의 통합

만달라는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wCBDC) 등 디지털자산 시스템 및 Swift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 송·수신시스템과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.

이러한 2가지의 통합사례에서 미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와 기존 금융인프라를 모두 지원하는 만달라 시스템의 범용성과 모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 디지털자산 시스템의 경우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스마트계약에 내재화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했다.